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
洪福

明慧期刊 제138기





목차

CONTENTS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

평안을 얻는 길

아는 것이 복

향간여론

- 권두일문 3 평안촌
- 독후감 4 리 선생의 글을 읽은 철학자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을 준다”
- 6 한국 목사 “리 선생님은 생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 7 “원래 우리는 다 창세주의 사람이구나”
- 8 40년간 잃었던 청각이 돌아오다
- 길성고조 (吉星高照) 9 얼굴에 난 사마귀가 사라지다
- 10 아들의 선행이 아버지에게 복을 가져다준다
- 11 밀접 접촉에도 감염되지 않는 막강한 면역력
- 12 휠체어를 떠나다
-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14 구사일생한 부부
- 16 암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과학기술회사 최고경영자
- 20 5월 13일, 억만 제자가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리다
- 22 파룬궁을 표창한 여러 나라의 정계인사들
- 24 대역병에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가?
- 26 공·검·법·사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 28 “딱 봐도 자세를 잡고 촬영한 거네”
- 30 격렬한 논쟁 앞에서 의혹을 풀어준다

평안촌 글/ 연산(燕山)

우리 마을은 허베이(河北) 평원의 작은 마을이다. 2022년 말 중국 각지에서 전염병이 대거 확산했을 때, 우리 마을에서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수십 명이 죽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2023년 설 기간, 우리 마을 손 씨 아버지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글을 들고 유 씨의 집을 찾았을 때, 유 씨의 동생은 “저도 좀 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모두 사석에서 말하는데, 이 사나운 전염병으로 어느 마을(가장 가까운 이웃 마을)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의외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죠. 정말 파룬궁 덕분일까요?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 자료를 보려고 해요.”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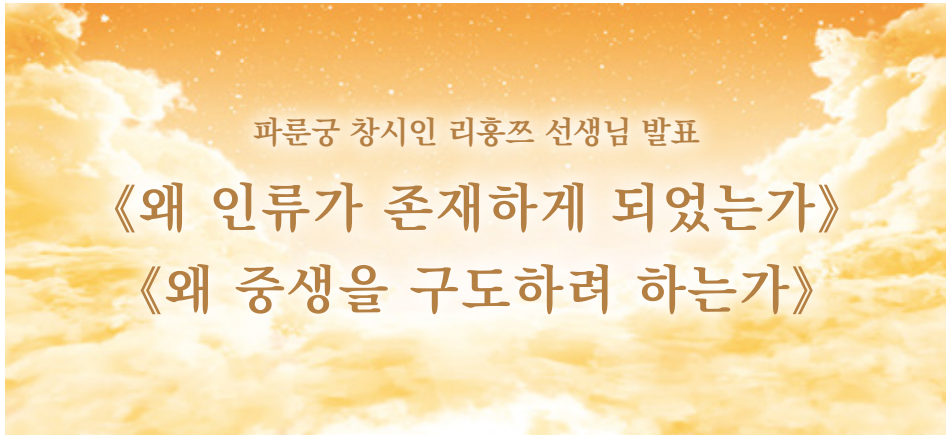
손 씨는 웃으며 대법 사부님의 경문이 실린 ‘밍후이주보(明慧周報)’를 꺼내 보이며 “보세요, 우리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러 오셨답니다.”라고 말했다.

손 씨는 올해 70대 중반이다. 그는 27년 전에는 마비로 침상에 누워 부축받

아야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지만, 1996년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몸이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되어 젊은이처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이 손 씨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대법 수련에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파룬따파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우리 마을 역대 서기와 촌장들은 모두 몰래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보호했고, 현이나 향에서 사람을 보내 소란을 피울 때마다 미리 소식을 전해 주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았다. 그들은 모두 진상을 분명히 알고 ‘3퇴’(중국공산당 3대 조직 공산당·공청단·소선대에서 탈퇴)를 했다. 그들의 선한 행동은 자신과 백성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정말 “불광(佛光)이 작은 마을을 비추니, 중생이 구원을 받고 법을 널리 알렸네. 대법을 널리 전해 좋은 결실을 맺고, 덕을 중시하고 선을 향하니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하네.”이다. 



▲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여러 민족 사람들 속에서 회람되며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리 선생의 글을 읽은 철학자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을 준다”

글/ 스펡(施萍)

‘미덕에 관하여’(On Virtue)의 저자 켈리 킨케이드 박사(위 사진)는 고대 그리스 철학 유파인 스토아주의(Stoicism)를 연구하는 학자다. 그는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 선생의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라는 글을 읽은 뒤 영어 씬탕런(新唐人)과의 인터뷰에서 자신

의 이해를 나눴다. 이 철학자는 리 선생의 글이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창세주의 사랑’을 인식하다

킨케이드 박사는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가 그가 읽은 리 선생의 두 번째

글(첫 번째 읽은 글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이라며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의 글에서 읽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분이 언급한 창세주의 사랑은 창세주가 모든 생명을 구하려는 원 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확실히 신성한 것이고, 깊은 차원의 통일 원칙이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세계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

킨케이드 박사는 ‘말세(末世)’라는 개념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세속주의자조차 기후 문제가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 선생님의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말세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킨케이드 박사는 그의 철학 연구에서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과 공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신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동물 본성에만 영합합니다. 철학적 논란은 우리가 동물의 일부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킨케이드 박사는 우리 인간은 탁월하고 고귀하며 신성한 특질과 이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신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이성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앙은 일종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우리 사상의 버팀목이고 구원의 희망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인 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거짓말은 사람을 허황한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 철학자는 리 선생의 글이 우주에 결국 도덕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주에 전체적으로 도덕적이며 궁극적인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굉장히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킨케이드 박사는 현대인들이 흔히 물질적 번영에 빠져 더 중요한 정신 신앙을 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목사 “리 선생님은 생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 투고] 78세인 강석정(姜錫貞, 위 사진) 목사는 60년간 500여 차례 헌혈로 봉사하며 생명에 대한 신념과 자애의 정신을 실천해온 존경받는 목회자다. 그는 리홍쯔 선생님의 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5~6차례 반복해 읽었다며,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강 목사는 말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과연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죠. 이 글은 삶에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글입니다. 힘들 때, 아프거나 괴로울 때, 그리고 그리울 때 이 글을 여러 번 보다 보면 평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는 어떤 영험함이랄까, 영적인 계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 선생님의 글을 보니 이분이 굉장

히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는 말했다. “리 선생님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하고 사회가 무질서하며 악이 흥흥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의 구원 메시지로서 이 글을 발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읽은 강 대표는 글을 인쇄해 모임이나 포럼에 나온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사회가 됐는데, 이것은 악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류가 나아갈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며, 창세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창세주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우리는 다 창세주의 사람이구나”

[중국 투고] 나는 올해 63세인 퇴직 노동자다. 예전에 우리 집 문 앞 선반에서 파룬궁 자료를 봤는데, 아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놔뒀다. 나중에 그들은 놓지 않았다.

나는 ‘공산당이 연마하지 말라고 하면 연마하지 말아야지, 곳곳에서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공산당에게 박해받는데, 왜 그러는 걸까?’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정부에서 수련을 막지 않았을 때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연마하는 것을 보았다.


5년 전, 한 파룬궁 수련생이 내게 진상을 알려주어 나는 그제야 파룬궁이 사람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수련생들은 나쁜 사람도 구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 “신불(神佛)께서는 좋은 사람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쁜 사람도 구해야 하지요?” 파룬궁 수련생은 “나쁜 사람이 진선인(真善忍)의 요구에 따라 행한다면 그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요.”라고 했다.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그런 나쁜 사람을 구하느라 박해받아 사망했는데, 나는 줄곧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는 파룬궁 수련생이 준 ‘밍후이주보’에서 리(李) 대사님께서 발표하신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나는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했고 인류가 어떻게 왔는지 알게 됐다. 나는 이 문장을 형에게도 보여줬다.

파룬궁 수련생은 또 리 대사님께서 발표하신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를 필사해서 내게 보여주었다. 그제야 나는 공산당이 박해할수록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을 더 알리려고 하는 이유를 홀연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우리는 다 창세주의 사람이고, 창세주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하느라 창세주는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고, 파룬궁 수련생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창세주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을 돕고 있다. 참으로 위대하다! 

40년간 잃었던 청각이 돌아오다

글/ 잉화(英華)



40년 전 베이징 이비인후 연구소는 내 귀가 멀게 된 원인이 ‘약물 중독’이라며 전혀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평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와 소통하려면 종이와 펜을 준비해 놓고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적어야 했다.

2023년 1월 19일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손녀가 인사하는 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렸다. 나는 손녀가 외지에서 갓 돌아와 목소리가 큰 줄 알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좀 있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도 아주 똑똑히 들렸다. 가족들이 하는 말을 반복해 들어보는데 정말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청력이 회복되던 순간, 감격으로 눈물이 그렇그렁했다.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지 20여 년이 된다. 나는 자비로운 사부님

께서 청력을 방해하는 병업(病業)을 없애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날 오후 파룬따파 서적을 공부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경이로움이었다.

2023년 1월 17일에 조카딸이 날 보러 왔을 때는 귀에 대고 몇 마디만 주고받을 수 있었고, 1월 18일에 가족과 대화할 때는 큰소리로 손짓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1월 19일에 조카가 날 보러 왔을 때는 아무 장애 없이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과정이 필요한데! 여섯 식구가 모두 대법의 신기(神奇)를 목격했다!



얼굴에 난 사마귀가 사라지다

[중국 투고] 2004년 설에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정 기간 목을 거라며 며느리가 먹을 울무쌀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며느리 얼굴에 납작한 사마귀가 가득 났는데, 모유 수유 중이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의사가 울무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월 14일에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왔다. 며느리는 내가 집에서 얇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더니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서 춥지 않다고 하자, 며느리는 인연이 있어서 스스로 파룬궁 책을 보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하룻밤 사이에 ‘전법륜(轉法輪)’ 책을 거의 다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



자 큰소리로 “어머니, 이 책 좋아요! 그들이 선전한 것과 달라요.”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는 또 “어머니, 애가 입이 좋아졌어요!”라고 외쳤다. 원래 아이의 입안에 아구창이 두 군데 생겼는데 병원을 두 군데 갔지만 낫지 않아서 매번 수유 후 약을 발라야 했다. 방금 보니 다 나았다! 며느리는 오성(悟性)이 좋아서, ‘전법륜’을 읽은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어서 연공을 가르쳐주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며느리는 연공한 지 이틀 만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간지럽다고 했다. 나는 “그냥 놔둬, 좋은 일이란대.”라고 말했다.

일주일 만에 며느리 얼굴에 있던 납작한 사마귀가 다 떨어졌다. 며느리는 “얼굴이 이렇게 매끄러운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라며 기뻐했다. 며느리의 친지들이 알고서 모두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아들의 선행이 아버지에게 복을 가져다준다




[허베이 투고] 내 친구 아들 웨이런(魏仁, 가명)은 한 대기업 노동처 처장이다. 한번은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웨이런이 한 가지 일을 들려주었다.

웨이런은 “우리 부서에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성실하고 충직하고 부지런히 일해 공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는 이유로 상부로부터 강제로 공직에서 해임당했어요. 얼마 전 그 아내가 직장에 찾아와 남편이 외지에서 일하려면 호적 소재지 노동 감독 위원회와 전 직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공직을 잃은 뒤 가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끼니조차 때울 수 없다며 울면서 하소연했어요.”라고 했다.

“듣고 있던 제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요. 단지 신념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의 가족을 매우 동정했어요. 당시 직장에서 마침 퇴직자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 퇴직 담당자에게 강제 해직된 그를 정상 퇴직자로 처리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제게 넘겨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웨이런의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그로부터 얼마 후 웨이런은 회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웨이런의 아버지는 80세가 넘었는데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두 눈이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웨이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다시 베이징으로 모셔 치료받게 했다. 의사는 말했다. “서로 아는 사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치료는 불가능하니 헛돈 쓰는 것이고 환자도 고생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웨이런의 아버지는 수술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나타났다. 수술 후 웨이런의 아버지는 시력이 회복되었다. 


밀접 접촉에도 감염되지 않는 막강한 면역력

글/ 안란(安然, 중국)




2022년 말,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거리는 쓸렁했다.

우리 아이도 감염돼 오한이 나고 몸이 아프고 미열이 지속되고 콧물에 기침도 났다. 아이 아빠는 서둘러 다른 낯은 집에 가서 살았고, 나는 남아서 아이를 봤다.

나는 매일 아이와 함께 ‘전법륜(转法轮)’을 읽었다. 아이는 책을 읽을 때 마스크를 쓰고 계속 가래를 뱉고 싶어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갔다. 나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고, 또 휴지통을 가져와 콧물 닦는 휴지를 넣었다. 아이는 내가 전염될까 봐 걱정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단다. 연공인의 몸에서 연마해 낸 것은 모두 고에너지 물질이라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죽일 수 있어.”라고 했다. 아이는 안심했고 우리 둘은 계속해서 ‘전법륜’을 열심히 읽었다. 

3일 후, 나와 아이가 ‘전법륜’ 제1강~제3강을 읽었을 때 아이는 증상이 완화됐다. 아이는 약 한 알 먹지 않았다. 그때 약국에서도 약이 매진돼 살 수 없었고 항원 시험지 세 장마저 이웃집 아이가 양성이라는 말을 듣고 보내준 것이다.

아이는 7일 후 증상이 거의 없었고, 시험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10일 후 테스트한 결과 음성이었다. 아이는 완전히 나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며칠간 아이와 같은 방에 있었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함께 밥을 먹고 아무 격리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줄곧 감염되지 않고 무사했다. 몇몇 지인은 전염병 발생 기간 내게 나타난 이 비범한 현상을 알고는 파룬궁에 관한 진상 자료를 달라고 했고, 일부는 와서 공법을 배웠다. 

휠체어를 떠나다

▶ 베트남 여성 응우옌이 파룬궁 제5장 공법-선통자스파(神通加持法)를 연마하고 있다.



응우옌 티 마이투앗(Nguyen Thi Mai Tuat)은 베트남 중부 이안시에 살고 있으며 한때 교사였다. 2014년 말, 응우옌은 갑자기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 검사에서 급성 감염성 다발성 신경근염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자가 면역 반응과 관련된 척추 신경 뿌리와 척추 신경에 주로 병변이 있는 신경계의 흔한 심각한 질병이다. 임상 증상은 급성, 대칭성 및 이완성 사지마비이다.

응우옌은 발병 첫 5일 동안 상태가 매우 심각했지만, 다행히 제때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전신 마비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걷기가 갑자기 불가능해진 이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다.

속담에 병이 위급하면 아무 의사에게나 막 보인다고, 응우옌은 누가 치료법을 제공하든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한

의학, 양의학, 약초, 민간 처방까지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멀리 독일에 있는 친구가 늘 최첨단 진통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잠시나마 통증을 가라앉힐 뿐이었다.

응우옌은 왜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주 통곡했는데 병에 걸려 울고, 인생의 무상함에 울고, 대가를 치른 보람이 없어 울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녀는 마침내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온 남편의 친구가 파룬궁을 알려주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신기한 효과를 소개했다. 다음 날, 이 친구는 또 파룬궁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转法轮)'을 가져왔다. 응우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남편과 함께 손님을 따라 '전법륜'을 한 번 읽었다. 읽고 나서 그녀는 조금 깨닫게 되었다.

응우옌은 기공이 원기·정력·기력을 한데 모아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제거할 수 있으니 아마 자기 병에도 효과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찍이 교사로 교육학을 공부했고 과학을 존중했다. 그녀는 문득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공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파룬궁을 배우려고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신이 많이 좋아지고 몸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은 남편에게 부축해달라고 했

지만,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이것은 병이 난 후 처음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매우 흥분했고 수련에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다.

3개월 후 어느 날, 응우옌은 마침내 정상인과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그녀는 울면서 연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응우옌은 "파룬따파는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전의 저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법륜'을 통독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2019년 5월 16일, 뉴욕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퍼레이드에 참여한 베트남 파룬궁 수련생들.

구사일생한 부부

글/ 정신(淨心, 중국 둥베이)

2005년 32세인 남편은 양쪽 대퇴골두 괴사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창춘(長春)에 있는 중의사가 병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듣고 언니에게 5천 위안을 빌려 치료하러 갔다. 그 중의가 처방한 약은 조금 효과를 보았으나 약이 위장을 상하게 해 위통이 심해져 약을 중단했다. 창춘에서 돌아온 후 다른 약으로 바꿔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때 나는 남편을 돌보아야 해서 출근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집에 있다 보니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대법을 수련하고 절망에서 벗어나다

2006년 1월, 언니는 힘겨워 몸부림치는 나를 보고 말했다. “내 둘째 동서가 전에 간 복수로 배가 불었는데, 나중에 대법을 수련하고 좋아졌어!” 내가 “대법(大法)이 뭐야?”라고 묻자 언니는 “파룬궁!”이라고 했다.

당시 파룬궁 박해가 심할 때였고 나

는 감히 수련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언니는 “집에서 몰래 해. 몸이 좋아지면 되지”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그럼 해보자! 방법이 없잖아.”라고 했다.

나는 다음날 둘째 동서 집에서 ‘전법륜’을 받아왔고 우리 부부는 집에서 법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무리 날씨가 화창해도 마음이 암담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읽자 마음이 확 트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바로 내가 찾던 책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날부터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남편은 겨우 한 달 배우고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며 더 배우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두 달이 넘자 남편은 서서히 혼자 활동할 수 있었고 나도 출근했다.

나는 원래 목디스크, 오십견, 심장병, 뇌 신경통 등 질병에 시달렸다. 수련 후에는 병이 나을지 어떨지 신경쓰지 않고 단지 법을 배우고 연공만 했다. 약 반년이 지나자 어디도 아프지 않고 병이 다 나았다.

당시 남편이 그렇게 아파도 시댁 식구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다. 친척 친구는 다들 이혼을 권했다. 나는 말했다.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신념이 있거든요. 대법을 믿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어요.”

만약 내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고부관계가 좋아지다

법을 배운 후 내가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남을 잘 대하자 물과 불 같았던 고부 관계가 개선됐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달라졌구나! 정말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하셨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동서와 시누이 모두 병수발을 들 수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누워계신 두 달 남짓한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시중을 들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 나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며느리 덕을 볼 줄 몰랐어. 며느리가 날 돌봐줄

줄은 몰랐지.”라고 하셨다.

남편은 수련하지 않지만 대법이 좋은 것을 알기에 매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다. 1년 반 후 그는 출근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

2019년 남편은 건강검진 때 외조카와 함께 갔다. 의사는 남편의 필름을 보더니 조카에게 “이 사람은 반신불수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조카가 “외삼촌은 멀쩡해요. 운전도 해요.”라고 하자 의사는 불가사의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모두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대법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비로운 사부님의 구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박해 전,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를 중국에서는 거의 집집이 알고 있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파룬궁 수련생 1만 2553명의 건강 상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호전율은 20.4%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이 97.9%에 달했다.



▲ 1993년 중국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최고 상인 ‘변연(边缘)과학진보상’과 ‘특별 금상’,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았다.

암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과학기술회사 최고경영자

밍후이 기자 선릉(沈容) 취재보도



▲과학기술회사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창.

브라이언 창(브라이언 Chang)은 미국 텍사스대를 졸업하고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다. 2021년 말 그는 갑자기 몸이 불편함을 느꼈고 의사는 암이라고 진단했다. 암세포는 급속히 퍼졌다. 이때 그는 10년 전 지나쳐버린 파룬궁이 생각났다.

2002년,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기공으로 병을 고치고 싶어 파룬궁 주요 서적인 '전법륜(转法轮)'을 청했다. 먼저 아버지 대신 이 공법을 알고 싶던 브라이언은 이틀간 '전법

륜'을 보고 참 좋다고 느껴서 자기가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다. 그 후 브라이언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대만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부와 일에 몰두하다 보니 수련을 게을리했다. 이 태만한 상태가 10년이 넘었다.

보기 드문 암이 급속히 퍼지다

2009년 브라이언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족을 돌보는 외에도 일하기 바쁘는데 창업까지 하다 보니 더 바빠져 수련

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라고 했다.

추구하느라 정신을 쏟다 보니 브라이언은 당시 자기가 끊임없이 회전하는 팽이처럼 되어 버렸다고 이렇게 말했다. “2021년에는 많은 일들이 꼬이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직장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아내와의 관계도 팽팽해졌는데, 이때 몸 상태까지 나빠져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팽팽한 부부 관계 속에 브라이언은 어느 날 몸 상태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배가 너무 불편해 병원에 가서 위장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그는 목 부위에 종양이 만져졌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병리학적 검사를 한 결과 보기 드문 혼성 생식 세포종인 악성 암이라고 했다.

“수술하기 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했어요. 수술 후에도 같은 검사를 했는데 수술 전후 일주일도 안 되어 암이 가슴 전체에 가득 찼어요.” 브라이언이 말했다.

의사는 서둘러 화학 약품으로 치료했지만, 여섯 차례 화학 요법 후 암세포는 의사가 예상한 목표치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고 화학 요법 부작용으로 브라이언은 신체에 심하게 손상됐다.

브라이언은 말했다. “병원에서는 B형 인간 용모막 생식 호르몬(b-HCG)으로 저의 암 수치를 판단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남자의 기준치는 2.5 이하이지만 심할 때는 3을 넘어 암 말기라고 할 수 있어요. 6번의 화학 요법 후, 저의 지수는 3 이상으로 떨어졌으나 아직 정상 기준치 이내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더는 몸이 감당 못 할 것 같이라며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어요.”

다시 수련하자 암이 사라지다

그때 브라이언은 마음속으로 수련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갈망이 생겼다. 오직 대법만이 자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시 '전법륜'을 펼쳐 들었고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도 연마했다.

그는 말했다. “몸이 너무 허약해 처음엔 잠깐 연공을 하다 잠시 앉아 쉬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서 불꽃이 이는 것 같아서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열흘이 되지 않아 한 시간 동안 서서 동공(动功)을 할 수 있었고 중간에 전혀 쉬 필요가 없이 체력이 빠르게 회복됐어요.”

이어 브라이언은 파룬따파 '9일학습반'에 참가했다. 체력이 빠르게 회복되

고 있어도 암 수치는 여전히 높아지던 때였다. “의사가 암이 재발할까 봐 대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이 수술은 명치에서 회음까지 갈라 창자를 통째로 뒤집어 내서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민 끝에 브라이언은 마음을 다잡고 수술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의외로 암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두 달 후, 지수는 기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의사는 너무 놀라워하며 브라이언에게 뭘 했냐고 물었다. 브라이언이 사실



▲브라이언 창이 파룬궁 제5장 공법-선통자츠파(神通加持法)를 연마하고 있다.

대로 파룬궁을 수련한 덕분이라고 하자, 의사는 그에게 언제부터 파룬궁을 배웠느냐고 묻더니 이를 진료기록에 적어 놓았다.

브라이언과 함께

온 가족이 대법 수련에 들어서다

브라이언의 심신 변화에 가족들은 매우 놀랐다. 브라이언은 말했다. “과거에 다른 법문에서 헤매던 아내가 제 몸의 변화와 성격의 변화를 보고 함께 대법을 수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차휴가 기간에 꾸린 파룬궁 9일학습반에 제 아이 셋, 장모님과 처제 등 총 7명이 함께 갔어요.”

대법 수련으로 돌아온 브라이언은 사부님께서 감당하신 것과 자비를 떠올리며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과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사부님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꼭 잘해서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또 자기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인연이 닿아 파룬따파를 듣게 되었다면, 들어와서 알아보세요. 만고의 기회와 인연이 당신을 위해 왔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파룬따파 간략 소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쑤(李洪志) 선생께서 1992년 5월에 전하기 시작한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지도로 삼으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사람을 선(善)하도록 가르치다 파룬따파는 수련자에게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도덕 수준을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따파 수련은 사람을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대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건강에 이롭다 1998년 베이징, 광둥 등 의학계 전문가들이 5차례 의학조사 한 결과 파룬궁의 질병 치유와 건강개선 효과가 9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이롭다 1998년 하반기 전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차오스(喬石)와 일부 퇴직한 노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한 수개월 간의 조사 끝에 ‘파룬궁은 나라와 민중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는 10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파됐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전법륜(轉法輪)’은 40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파룬따파 웹사이트(falundafa.org, 중국 독자들은 인터넷 봉쇄를 뚫고 방문해야 하며, 방법은 뒤표지에 있음)에 접속해 무료로 읽을 수 있다.



5월 13일 억만 제자가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리다

2023년 5월 13일은 제24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자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31주년 기념일이며,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생신이다. 전 세계 억 명에 달하는 대법제자가 단체 연공, 문예 공연, 성대한 퍼레이드 등으로 이날을 경축했다. 이들은 또 리홍쯔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진선인(真·善·忍) 대법을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대만



캐나다 오타와



미국 뉴욕



호주 멜버른

파룬궁을 표창한 여러 나라의 정계인사들



▲캐나다 19개 도시에서 깃발 게양식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 조명의식을 열어 5월 13일 세계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2023년 5월 13일은 제24회 ‘세계파룬따파의 날’이자 파룬따파가 세상에 널리 전해진 31주년 기념일이다. 세계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상장과 축하 서신을 보내 파룬따파와 그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인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표창했다.

깃발 게양과 조명의식으로 파룬따파의 날 경축

캐나다와 미국 20여 개 도시에서 세계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깃발 게양식과 조명의식이 열렸다. 일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국기 게양식 사회를 맡고 상장을 낭독하며 해당 도시의 ‘파룬따파의 달’ 또는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하여,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세계에 평화와 복지를 가져다주는 파룬따파를 극찬했다.

2023년 5월 13일, 미국 국회의원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의 요청으로 미국 국기 두 장이 국회의사당에 휘날리며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파룬따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파룬따파의 핵심 원칙-진선인(真·善·忍)을 전한 것을 표창했다.



마이클 갈러
(Michael Gahler)

여러 나라 정계인사 축하 메시지(발췌)

유럽의회 독일 의원 마이클 갈러:

“진선인’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열린사회를 건설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파룬궁 수련생은 평화롭고 솔직한 착한 수련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롭게 지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주디 스그로
(Judy Sgro)

캐나다 국회의원 주디 스그로:

“파룬궁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진선인’을 파룬따파의 초석으로 다진 탁월한 식견을 갖춘 리홍쯔 선생께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단체를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메시지, 즉 평화와 안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법제자들이 창도하는 ‘선(善)’입니다.”



하킴 제프리
(Hakeem Jeffries)

미국 하원 소수당 지도자 하킴 제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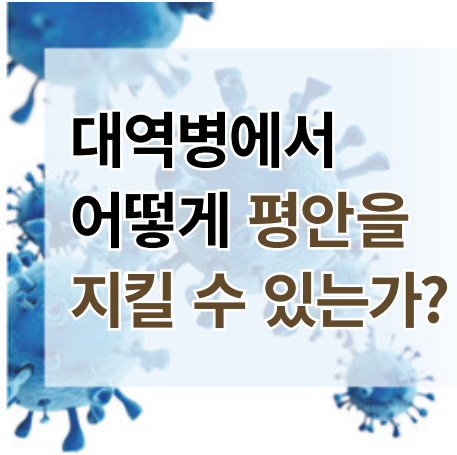
“파룬따파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 그 실천은 우리 사회에도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일을 축하함과 아울러 리홍쯔 선생께서 이런 수련법을 창안해 주신 것에 대해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우로 포지아
(Mauro Poggia)

스위스 제네바 주의회 의장 마우로 포지아:

“여러분의 사업은 정의로우며 여러분은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세계가 눈을 떴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눈을 떴으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대역병에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가?

2023년 5월 이후 베이징의 ‘얼양(二陽, 코로나 2차 감염)’ 인수가 늘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6월 말이 전염병의 최고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역병에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충칭 독자의 기고문을 함께 보자.

역병에 걸린 두 사촌형의 판이한 결과

나는 사촌형 1명과 외사촌형 1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올해 84세이고 작년 설달 중순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사촌형은 농촌에 살고 집에는 노부부 밖에 없다. 사촌형이 먼저 ‘감염’됐는데 며칠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형수를 감염시켰다. 그때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를 차로 지역 보건소로 옮겼고 사촌형도 병원으로 따라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촌형은 생각밖에 밖에서 부는 바람에 추워서 떨더니 병이 재발했다. 사촌형은 아들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사촌형은 차에서 건딜 수 없어 신음을 내면서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사촌형은 끊임없이 ‘9자진언’을 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부부는 다 나왔다. 그들은 대법 사부님께 매우 감사했다!

대도시에 사는 외사촌형은 운이 좋지 않았다. 형이 처음엔 코로나에 걸리고 완치되었지만, 얼마 안 가 목욕하고 재발한 뒤 4~5일 만에 사망했다. 무신론에 중독돼 대법을 전혀 믿지 않던 외사촌형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9자진언’의 면역력 증강 원리

위 작가의 외사촌형은 목숨을 구하는 ‘9자진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쉽다.

‘9자진언’의 항바이러스 메커니즘에 관하여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의학박사이자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바이러스 전문가 동위홍(董宇红) 박사는 파룬따파는 불가(佛家)의 고덕(高德) 대법이고 진선인(真·善·忍)은 우주의 특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성심껏 외울 때 우주의 강력한 바른 에너지가 외우는 이의 세포에 관통되어, 자기 면역력 증진과 면역체

계 항바이러스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는 ‘황제내경’의 “마음에 정기가 있으면 사(邪)가 교란하지 못한다(正气存内, 邪不可干)”라는 이치와 같다.

동위홍은 ‘9자진언’은 외우기 쉽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다른 치료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신만 또렷하면 읽을 수 있다.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속으로 묵념해도 된다. 마음을 써서 할수록 효과는 더 좋다.

2022년 12월 중국 전역의 전염병 대유행 때 공식 발표된 부고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전문가, 유명인, 관리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다.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도 부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망 나이는 청장년을 향해 늘어나는 추세이다.

왜 우수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관료, 유명인, 전문가들의 전염병 사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가? 중국과 서양의 전통문화에는 ‘역병이 눈이 있다(瘟疫有眼)’라는 말이 있는데, 역병이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병을 피하는 영단묘약(灵丹妙药)

2019년 말에 확산한 이 역병에 관하여,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은 ‘이성(理性)’이라는 글에서 직

접 개시하셨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이런 역병은 목적이 있으며,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은 사당분자(邪党份子) 및 중공사당(中共邪党)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도태하러 온 것이다.”

역병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리홍쯔 선생님은 세인들에게 경고하셨다. “중공사당(中共邪党)을 멀리하고, 사당(邪党)을 위해 줄을 서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붉은 마귀가 있기 때문으로, 표면적인 행위가 깡패일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짓을 다 한다. 신은 그것의 제거를 시작하려 하는바, 그것을 위해 줄을 서는 자는 모두 도태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켜보도록 하라.”

리 선생님은 또 방역의 근본을 개시하셨다. “사람들은 마땅히 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는바, 자신의 어디가 나쁘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기를 희망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영단묘약(灵丹妙药)이다.” 리 선생님은 제자에게 위험에서 사람을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예를 들어, 진상을 알리고 삼퇴(叁退)하고 진심으로 진언(真言)을 염(念)하는 것이 모두 가장 좋은 영단묘약이자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다.”

모두가 진상을 명백히 알고 무사히 재난을 넘기길 바란다.



공안·검찰·법원·사법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글/ 원상(文祥, 중국)

많은 사람 중에 당신과 제가 편지로 만난 것은 더없이 다행이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 생명의 기원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명과 이익, 가정의 원만함, 자손의 안녕이 모두 인생의 복덕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고대에는 ‘관아에 있으면 수행하기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자신과 자손에게 복을 쌓는 법을 압니다.

2021년 9월,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전안(振安)구 검찰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파룬궁 수련생 판징(潘晶)에 대한 공안의 사회적 위험성 고발을 기각해 판징은 석방돼 귀가했습니다. 현재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중국 검찰원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 사건 반려가 420여 건을 넘었고, 사건 철회는 수십 건에 이릅니다.

노교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에게 전기봉으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충격을 주


게 했고 그도 전기봉을 수련자 몸에 댔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몰래 웃으면서 수련자에게 자신은 ‘지하 공작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양심과 정의는 그를 온종일 싱글벙글하게 했고 만사를 순조롭게 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경찰관은 ‘전법륜(转法轮)’을 보았기에 이 책이 보서(宝书)임을 알았습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그는 납치된 수련자를 몰래 풀어줘 집에 보내주고, 수색했던 책도 수련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베이징 사스 전염병 때, 그 주변에서 대법 박해에 힘썼던 경찰관들은 거의 다 사망했고 어떤 경찰은 일가족 모두 사망했지만, 그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는 대법을 보호해 큰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색 중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안·검찰·법원·사법 관계자들은 아마 가장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집단이자 최대의 피해집단일지도 모릅니다. 파룬궁 박해가 가장 잔인했던 시기,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해 “때려죽이면 그만이고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라.”라는 밀령을 내리고 공안·검찰·법원·사법을 하수인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대법제자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해 폭리를 취했는데, 그야말로 이들을 지옥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간 역병이 끊이지 않아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보 차단으로 대부분 사람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왜 파룬궁 수련자들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려 할까요? 정말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사람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상을 분명히 알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큰 재난을 피해 평안을 얻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삼퇴가 평안을 지켜줍니다

2023년 6월 초 현재 해외 탈당 사이트에서 ‘삼퇴’(공산당·공청당·소선대 탈퇴)를 성명한 인원수가 4.1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삼퇴’ 사이트(<https://santui.tuidang.org>)에 접속해 진심으로 탈퇴하면 실명, 가명, 애명 다 가능합니다.

“딱 봐도 자세를 잡고 촬영한 거네”

TV 프로듀서 리쥘(李军):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나는 난징(南京)에서 ‘사회 대광각(大广角)’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CCTV의 ‘초점 취재(焦点访谈)’ 같은 성격으로 TV 뉴스 특집 프로그램에 속한다. ‘초점 취재’가 ‘분신자살’ 사건을 방송했을 때, 우리 영화 제작자 몇 명이 다 보고 있었다. 보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결론 중 하나는 바로 이 영상이 스냅 촬영이 아니라 자세를 취하고 촬영한 연기라는 점이였다. 내가 찍을 수 있게 당신이 거기서 자세를 잡고 나와 호흡을 맞춰줘야 내가 찍을 수 있다는 뜻이다.



▲TV 전문가들은 CCTV가 방영한 ‘분신자살’ 비디오를 보면 이것이 자세를 취하고 촬영한 연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는 장면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류쓰잉의 등장은 한 세트의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류쓰잉이 들것에 누워있는 장면, 두 번째는 류쓰잉에 대해 머리 부분의 클로즈업 할 때 그녀가 “엄마”하고 외치는 장면,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녀를 구급차에 태우는 장면, 네 번째는 이 구급차가 떠나는 장면이다.

이 세트의 장면을 나더러 다시 찍으라면 한 가지 상황만 찍을 수 있다. 즉 구급차 운전자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인원

은 반드시 내 지휘를 따라야 한다.

촬영을 재연하면 이 과정일 것이다.

먼저 류쓰잉을 거기 놓고 내가 먼저 카메라로 전경을 찍는다. 이때 류쓰잉은 소리를 지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류쓰잉에게 “엄마”를 외치라고 한 다음 그 의사 간호사가 다가가서 류쓰잉에게 말한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아? 한 번 불러봐. 이때 내가 렌즈를 가까이 밀어 두부를 클로즈업하고 류쓰잉은 “엄마”라고 외친다. 소리 지르고 나서 류쓰잉을 차에 태울 때 내가 이 각도에서 한 컷을 찍는다. 차에 태운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내가 각도를 바꿔서 다시 찍는다. 자, 이제 차가 출발할 수 있으니 구급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찍는다.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구급차가 화상 환자를 구하러 왔을 때 나는 한 장면도 찍을 수 없다. 이 간호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자를 차에 태우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텐데 어떻게 당신을 기다릴 수 있겠나? 거기 멈춰서 당신더러 어떻게 찍으라고 할 수 있고 클로즈업까지 찍을 수 있겠나? 클로즈업 촬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점 취재’의 ‘분신자살’ 비디오를 보고 나서 우리 TV 분야 종사자들은 그것이 바로 자세를 취하고 촬영한 것임을 알았다.

다음은 리쥘이 최근 ‘엘리트 포럼’에 출연해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조작 과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왕진동과 경찰은 카메라맨과 협조해야 한다

‘분신자살’ 비디오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 중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왕진동(王进东)이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자 그 뒤에서 소화 담요를 들고 대기하던 경찰이 그가 외친 후에 불을 끄

다. 이 화면을 찍는 카메라는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왕진동으로부터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너무 멀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녹음할 수 없다. 두 번째, 왕진동이 촬영에 협조해야 하고 경찰도 협조해야 카메라맨이 이 장면을 찍을 수 있다.

류쓰잉의 한 세트 장면을 다시 찍으라면

한 가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때 그 소녀 류쓰잉(刘思颖)이 “엄마”라고 외치

격렬한 논쟁 앞에서 의혹을 풀어준다

글/ 스후이(思慧, 중국)



2022년 초봄, 한번은 근처 관광지 역에 가서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했다. 퇴직 간부 5~6명이 대화 중이었는데 나는 그들이 듣지 않을까 봐 2~3미터 떨어진 데 있는 두 여성에게 진상을 알렸다. 두 여성은 잘 듣더니 ‘삼퇴’(중국공산당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하고 Ming후이 정기간행물을 가져갔다.

그때 노간부 몇 명이 말을 걸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죠! 이리 와봐요! 이리 와요!” 내가 막 다가가지, 이 몇 사람이 속사포처럼 나를 향해 발포했다. 나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뭐 하러 왔는데,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닌가. 그럼 당신들을 모두 구해야겠다!

차분하게 말했다. “한 분씩 말씀하세요. 안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반(反)당이야!”라고 하자 나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셨어요.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제거하고 건강해지는데, 사회에 백 가지 이로운 것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요.”라고 했다.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어...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

그 사람이 “탈당하라는 건 반당이요!”라고 하자 나는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재난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부패가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많은 탐관오리를 잡았는데, 잘못 잡은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이 다스리므로, 천재와 역병이 이 부패한 당을 향해 온 것입니다. 탈퇴하시면 그것의 분자가 아닙니다. 입당할 때 했던 맹세는 지워지고 하늘이 그

것을 멸망시킬 때 순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기를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닌가요?”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이 “공산당이 이렇게 강한테 망할 수 없어요.”라고 하자, 나는 “진시황은 강하지 않았나요? 사라진 지 2천 년이 넘었어요. 소련도 강대했죠? 하룻밤에 무너졌잖아요? 하늘의 뜻이니 거스를 수 없어요.”라고 했다.

퇴직금은 어디서 올까?

한 사람이 “파룬궁이 얼마 줍니까?”라고 묻자, 나는 “한 푼도 주는 것 없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누가 “퇴직금 있어요? 당에서 준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나는 “저는 연금이 없어요. 당신 연금도 공산당이 준 게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모르세요? 당신은 매달 월급 일부를 공제한 것을 퇴직금으로 쓸 것입니다. 당이 당신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공산당을 부양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봉쇄된 방역 정보

또 누군가 “××당이 역병을 이겼으니 당에 감사해야죠!”라고 하자 나는 말했다. “어떻게 이겼어요? 지난여름 방송에

당이 역병을 이겨냈다고 떠들어 댔지만 10월에는 더 많은 곳에서 발병했어요.”

그 사람은 또 “애초 우한(武漢) 전염병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는데, 당신들은 선행을 말하지 않나요? 왜 상관하지 않죠?”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산련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을 읽고 완치됐는데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인터넷에는 이 분야의 많은 정보가 XX당에 의해 삭제됐어요. 진선인이 좋고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억지로 버티며 아직도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역병과 천재 지변은 바로 그것이 초래한 것입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일리 있는 말 씀입니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태도가 누그러지더니 거의 모두 우호적인 미소를 보냈다. 나는 말했다. “몇 분은 당원 이시죠? 탈퇴하고 평안을 지키세요. 본명, 애명, 가명도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관직이 높아도 건강해야 누릴 수 있지 않나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요.”

마침내 3명이 탈당하고 연신 고마워했다. 나머지 몇 명은 태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Ming후이 정기간행물을 달라면 서 집에 가서 보겠다고 했다. 



▲ 2023년 5월 12일,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파룬따파 세계 흥전 31주년과 제24회 세계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대형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진선인(眞·善·忍)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드리다

작자: 마고연(万古缘)

진선인의 밝은 마음은 일념이 천금을 능가하네
 역귀는 놀라서 피하고 역신은 공손히 물러가네
 진선인의 순수한 마음에 온 가문이 덕을 보네
 재앙을 멀리하고 가업이 흥하니 후손이 은혜를 누리네
 진선인을 수련함에 도를 깨닫고 불음(佛音)을 듣네
 본성의 고향으로 다가서 진(眞)으로 돌아가니 끝없는 행복이네
 진선인을 마음에 새겨 영원히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리네
 만고의 기원이 맺어 준 휘황찬란한 대법을 맞았네!

봉쇄들과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